

## 근대 야외 조형물 보존처리의 Process

: Calder 'Big Crinkly'와 Moore '와상' 보존처리 사례를 중심으로

김주삼

삼성미술관 리움 보존연구실

## The conservation treatment process of modern outdoor sculpture

: the cases of Calder 'Big Crinkly' and Moore 'reclining figure'

Joo Sam KIM

Conservation dep. LEEUM Samsung museum of Art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근현대 조각품들은 손상유형을 보면 자연적인 노화나 인위적인 손상으로 말미암아 보존상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녹이나 작품에 사용된 페인트의 손상으로 제작 당시와 비교할 때 흉하게 변해 버려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처럼 야외 조각물의 경우 자연적인 노화에 의해 작가의 의도와 달리 원치 않은 녹이 발생하거나 칠이 손상되어 작품의 외관이 흉하게 변해버렸다면 작가의 최초 의도에 따라 제모습을 찾아주는 것이 합당한지 원형 존중차원에서 현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는 야외조각 작품을 고고유물이나 기타 예술품의 경우와 같은 성격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문화재 보존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작가의 의도를 더 중요시 하는 근현대 작품들의 경향과 작품의 용도를 고려할 때 적극적인 처리방법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적극적인 처리방향은 작품의 재료적인 특성과 작가의 의도가 매우 명백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 소개할 두 가지의 처리사례는 각기 작가의 의도와 작가 사후 작품을 관리하는 재단의 보존과 복원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한 처리과정이다.

Calder 'Big Crinkly' 기하학적인 철 구조물에 원색의 공업용 페인트를 칠한 작품이며 녹에 의해 작품 표면이 오염되고 고정용 볼트가 부식되는 손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손상은 작가가 생존하였을 때도 예상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 작가의

재단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칼더 작품의 보존복원 방법의 지침을 올려 놓고 있다. Moore의 경우는 청동조각의 색 (Patina)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작가로 유명하다. 청동조각이 자연녹에 의해 최초 작가가 의도했던 파티나색과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될 때 적극적인 재 파티나 작업을 허용하고 있다. 실제 그의 재단 소속 보존처리자들은 파티나 작업에 필요한 약품의 종류와 구체적인 처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근현대 야외조각품의 보존처리 방향에 있어서 작가의 의도에 충실한 처리를 하여야 할 지 작품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보존방법을 결정해야 할 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며 작품에 대한 충분한 자료 조사와 작가의 의견도 고려하여 처리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